



신라의 ‘一統’ 인식과 그 영향

新羅の‘一統’認識とその影響

저자 張日圭
(Authors)

출처 신라사학보 , (32), 2014.12, 83-117 (35 pages)
(Source) SILLASAHAKPO , (32), 2014.12, 83-117 (35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250>

APA Style 張日圭 (2014). 신라의 ‘一統’ 인식과 그 영향. 신라사학보, (32), 83-117.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8/10 15: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一統’ 인식과 그 영향

張日圭*

- | | |
|------------------------------|---------------------|
| I. 머리말 | IV. ‘일통삼한’ 인식으로의 회귀 |
| II. ‘일통삼한’ 인식의 정립 | V. 맺는 말 |
| III. ‘일통삼한’·‘일통삼국’
인식의 공존 |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의 ‘一統’ 인식이 형성·변화한 과정을 살피고, 그것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통일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문무왕은 ‘당나라의 義軍’과 함께 ‘선왕의 뜻’을 이어 ‘원흉을 제거하였다’고 국내외에 알렸다. 하지만 통일 전쟁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주요 논저 :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韓國古代史研究》 74, 2014 ; <《삼국유사》 왕력편·기이편의 신라 하대 기사와 사회상> 《新羅史學報》 30, 2014 ; <崔致遠의 儒敎的政治理念と社會改革案> 《古代東アジアの知識人崔致遠の人と作品》, 九州大學出版會, 2013 ; <《계원필경집》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震檀學報》 112, 2011 ; <응림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 《新羅史學報》 22, 2011 ; <신라 멸망 이해의 길잡이—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景文王家》> 《韓國古代史研究》 62, 2011 ; <송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 192, 2006 외 다수.

이 끝난 뒤에 신문왕은 ‘一統三韓’·‘統三’을 강조하면서 전쟁에서 희생되었던 ‘신라 백성의 추승’을 부각하였다. 이것은 원성왕과 소성왕 이후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아울렀다는 ‘일통’ 인식은 신라 중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하대 초에 정립되었다.

신라 말에 ‘일통’ 인식은 혼재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대체로 왕명을 받아 비명을 찬술하였던 유학지식인에 의해서 나타났다. 곧 金穎은 ‘삼한’과 ‘신라 백성’을 강조하였는데, 崔致遠은 신라 백성을 위무하였던 무열왕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치원은 ‘일통삼한’·‘통삼’에서 ‘삼한’을 ‘삼국’으로 바꾸어 이해하면서, ‘一統三韓’과 ‘一統三國’을 함께 강조하는 ‘일통’ 인식을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 신라와 발해를 둘러싼 進士試 급제 경쟁에 관련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를 비난하면서 신라의 통일을 강조할 때, 삼한의 비정을 달리하며 진한인 신라 국가를 앞세우는 ‘일통삼국’ 인식을 애써 강조하였다.

후삼국시기에 ‘일통’ 인식은 다시 변화하였다. 견훤과 왕건은 세력을 다투면서 ‘일통삼한’ 인식을 거론하였다. 그들은 신라 국왕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할 ‘尊主’로 부각하였다. 특히 신라의 영역을 나누어 지배하였으므로, ‘일통삼국’이 아닌 ‘일통삼한’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의자왕의 宿憤’을 강조하였고, 왕건은 고려를 세우면서 ‘고구려의 원수’가 아닌 ‘고구려’를 강조하였다. 견훤은 백제 국가를 유념한 ‘일통삼국’을 나타내었지만, 왕건은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쏟으며 이전의 ‘일통삼한’을 내세우면서 민심을 회유하였다. 신라 국가를 부정하였던 백성들은 점차 ‘삼한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일통’ 의식을 갖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민심은 왕건 쪽으로 기울었고, 왕건은 마침내 후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고려는 ‘일통삼한’ 인식을 유지하면서, 따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발해 유민을 아울렀다. 신라의 ‘일통’ 인식은 후삼국시기에 통일 방안의 하나인 ‘일통’ 의식으로 기능하였던 셈이다.

주제어 : 一統, 一統三韓, 一統三國, 후삼국 통일 방안, 견훤, 왕건

I. 머리말

한국사에서 신라는 두 번의 통일과 관련되었다. 7세기 중반에 각각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통일을 이루었고, 10세기 초반에 후백제와 고려가 세력을 다룰 때는 고려가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았다.

지금까지는 7세기 중반의 통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연구는 대체로 삼국통일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그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를 제기한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곧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하면서 삼국을 통일한 데 대해 '一統三韓' 의식을 가졌기에, 신라의 삼국통일은 同族인 삼국을 하나로 합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¹⁾ 나아가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시의 국제 현실을 고려하여 애초부터 평양 이남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고, 당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신라가 선전포고를 하여 이룬 자주성 회복의 사건이었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²⁾ 그 뒤 신라가 삼국통일 전후에 護國意識, 統一의식, 일통삼한의식, 신라중심의식 등으로 점차 자주의식을 발전시

-
- 1) 震檀學會 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崔昌圭, <三國統一의 民族史의 意義와 韓民族 再結合의 理念> 《國土統一》 1973년 11월 호—特輯: 新羅의 三國統一이 南北韓 平和統一에 주는 教訓, 國土統一院, 1973; 李瑄根,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原動力>, 같은 책, 1973;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邊太燮, <三國統一의 民族史의 意味—「一統三韓」意識과 관련하여> 《新羅文化》 2, 1985; 申滢植, <新羅 三國統一의 研究史의 評價>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8; 申滢植, <三國統一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61·62, 1988; 邊太燮,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1989;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2) 李昊榮, <新羅 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統一意識을 中心으로> 《史學志》 15, 1981.

켰다고 보기도 하였다.³⁾ 신라의 삼국통일은 자국의 상황과 국제 정세를 아울러 살핀 자주적 행위였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申采浩 이래 부정론을 계승하면서 신라 중대 왕실이 신문왕대 이르러 정치와 외교의 과정에서 ‘일통삼한’을 의식하였으므로, 신라의 삼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과 괴리되어 지배층 위주로 추구된 이념일 뿐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⁴⁾ 이러한 연구는 삼국통일을 신라가 고구려의 영역을 완전히 편입하지 못하였고, 당나라의 힘을 빌어 동족을 멸망시켰다는 불완전하면서 사대적인 행위의 결과라고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후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곧 신라와 달리 고려가 발해의 영역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遺民을 대거 받아들였기에, 사실상 후삼국 통일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러한 연구이다.⁵⁾

신라는 백제, 고구려, 당나라와의 전쟁을 끝낸 뒤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문물 교류를 확대하면서 절정을 구가하였다. 하지만 하대에 이르러 귀족세력이 왕위를 두고 치열한 왕위계승 다툼을 벌이면서 점차 쇠퇴해졌다. 국왕의 위상은 약화되었고, 귀족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해갔다. 왕위계승 다툼에서 패배한 귀족세력이 자신의 경제적 기반으로 낙향하면서 왕실의 지방 통제는 점차 어려워졌고, 왕실이 연이어 일어난 기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방 곳곳에서 草賊이 일어났다. 낙향세력과 초적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궁

3) 李昊榮, <新羅의 三國統一과 ‘一統三韓’ 意識의 成長> 《東洋學》 26, 1996.

4) 金瑛河,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 17, 1983 ; 金瑛河,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 ; 김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 김영하, <新羅統一論의 軌跡과 涵의> 《韓國史研究》 153, 2011.

5)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1997 ; 박종기,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예와 견훤은 신라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며 세력을 다투었다.

견훤은 892년에 서남해 防戍軍으로 있다가 무진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일구었다.⁶⁾ 그 뒤 900년에 완산주에서 ‘蘇定方이 이끈 당나라 군사와 金庾信이 인솔한 신라 군사에 의해서 멸망한 백제 의자왕의 宿憤을 풀겠다’고 외치며 후백제를 건국하였다.⁷⁾ 궁예는 891년에 竹州의 賊魁 箕萱에게 투신한 뒤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고, 896년에 王建을 휘하에 거느렸다. 901년에는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원수를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고려의 왕이라고 하였고, 그 뒤에는 浮石寺에 나아가 신라 국왕의 초상을 칼로 베었다.⁸⁾

견훤이 내건 ‘의자왕의 숙분’은 후백제 건국의 명분이었다. 아울러 그것은 완산주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민심을 회유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백제 멸망’을 거론한 바탕에는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쳐서 이룬 삼국통일을 부정하려는 인식이 포함되었다. 궁예 역시 ‘고구려의 원수’를 언급하며 신라 국왕의 초상을 훼손하여 민심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이것 역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처럼 신라 말에 지방 곳곳에서 신라 왕실에 반발하는 세력이 일어나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신라의 영역 안에서 국가 체제를 이루고 세력을 치열하게 다투며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신라의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백제만의 정복과 말해와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든지, 신라 사회에

6) 《三國史記》 권11, 진성왕 6년조.

7) 《三國史記》 권50, 견훤전.

8) 《三國史記》 권50, 궁예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신라 중대 왕실은 삼국통일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였다. 하지만 중대 왕실이 혜공왕을 마지막으로 왕위를 더 이상 계승하지 못하고, 귀족 세력이 세력을 다투면서 하대 왕실을 열었으므로, 삼국통일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당시 사회상과 관련되어 유지되거나 변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견훤이 내세운 ‘의자왕의 숙분’과 궁예가 행한 신라 국왕 초상의 훼손을 고려할 때, 후삼국시기 전후에 나타난 ‘일통’ 인식이 신라인의 ‘일통’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곧 신라와 다투었던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였을 때의 ‘일통’ 인식과 신라 영역에서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던 때의 ‘일통’ 인식이 어떠한지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신라의 ‘일통’ 인식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일통’ 인식의 내용을 살피고자 작성되었다.

II. ‘일통삼한’ 인식의 정립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660년에 백제를 정복하고, 이어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며, 676년에는 백제와 고구려 부흥군과 힘을 합하여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간의 전쟁은 세 나라가 경쟁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때문에 세 나라는 때로는 홀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지

9) 삼국통일의 의미와 후삼국통일의 의미를 연관시켜 이해한 연구로는 김갑동,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研究》 143, 2008 :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가 참고된다.

만, 대체로 세력을 연합하여 치열하게 영역을 다투었다. 자연히 국내에서는 체제를 정비하는데 힘쓰는 한편 국외 정세를 살피는데 소홀할 수 없었다.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확보한 뒤, 백제와 신라는 두 나라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다. 고구려 역시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는 물론 당나라와 요하를 두고 계속 다투었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오랜 전쟁이 끝나자, 신라는 그 결과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것은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5일에 왕이 사로 잡은 고구려 포로 7,000명을 이끌고 왕경으로 들어왔다. 6일에 문무 신료들을 데리고서 선조묘에 절하며 아뢰었는데, “삼가 선왕의 뜻을 이어 大唐과 함께 義軍을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몰어, 元兇이 죄를 누우치고 國運이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고하니 신께서는 들으소서”라고 하였다.¹⁰⁾

문무왕은 고구려의 왕성인 평양성을 함락하고서, 신라에 돌아와 백제와 고구려 두 원흉을 없애 태평성대의 정세를 열었다고 선조묘에 고하였다. 특히 당나라와 함께 의군을 일으켜 완수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문무왕의 선조묘 배알은 신라 국내에만 승전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선왕의 뜻을 이었다’는 표현이나 ‘대당과 함께 의군을 일으켰다’는 표현은 선왕인 태종무열왕의 의지를 알고 함께 움직였던 당나라에도 승전을 알리려는 목적을 담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신라 왕실은 고구려 멸망에 맞추어, 이전부터 신라를 괴롭혔던 백제와

10) 《三國史記》 권6, 문무왕 8년조에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兇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라고 하였다.

고구려를 당나라와 함께 물리쳤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 멸망의 대가로 평양 이남의 백제 故土를 귀속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당나라가 고구려 고토인 이 지역에 대한 점령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지원하면서 평양 이남 지역에 대한 점유를 꾀하였다.¹¹⁾ 이에 당나라 고종은 당나라에 머물고 있던 金仁問을 신라왕으로 삼아 귀국시키고는 군사를 내어 신라를 공격하였다.¹²⁾

그 뒤 두 나라 군사는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막을 내렸다.¹³⁾ 신라가 당나라와 겨루어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전처럼 당나라와 함께 움직여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였다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다른 내용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당나라 중종이 사신을 보내 조칙을 내렸는데, “우리 太宗文皇帝는 신묘한 공과 거룩한 덕이 千古에 뛰어났기에, 황제께서 세상을 떠나신 날 廟號를 ‘태종’이라 하였다. 너희 나라의 선왕인 김춘추에게도 같은 묘호를 쓰고 있으니, 매우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小國의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聖祖의 묘호와 서로 저촉되었는데, 칙령으로 고치라 하니, 어찌 감히 명령을 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건대 선왕 춘추는 자못 어진 덕이 있었고, 더욱이 생전에 어진 신하인 金庾信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삼한을 통일 하였으니, 그 공적을 이룩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추존한 묘호가 성조와 서로 같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

11) 《三國史記》 권6, 문무왕 10년조.

12) 《三國史記》 권7, 문무왕 14년 정월조.

13) 《三國史記》 권7, 문무왕 16년 11월조.

다. 지금 敎勅을 들으니 두려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앞드려 바라는 것은 사신이 대궐의 뜰에서 복명할 때 이대로 아뢰어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다시 또 다른 조칙이 없었다.¹⁴⁾

나당 전쟁이 끝난 지 16년이 되는 해에 당나라 사신이 신라에 와서 김춘추의 묘호인 ‘태종’을 고치라고 하였다. 신문왕은 조칙을 받아 두려움을 이기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김춘추의 묘호를 ‘태종’이라고 정한 뜻과 과정을 말하였다. 곧 그는 당나라 태종문황제의 묘호가 ‘태종’인 것은 신묘한 공과 거룩한 덕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신라 김춘추 역시 어진 덕이 있었고, 특히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 삼한을 통일한 공을 세웠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왕은 태종문황제의 공덕과 비교할 때, 삼한을 통일한 김춘추의 공적도 그와 다름없음을 부각하였다. 나아가 김춘추가 세상을 떠난 뒤에 옛 신라를 포함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김춘추를 기렸기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사용하였다고 알렸다. 김춘추가 ‘태종’이라는 묘호를 사용한 것은 ‘一統三韓’을 기린 백성들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문무왕 때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쳤음을 당나라 황실에 애써 알렸다. 그런데 신문왕 때에 이르러서 신라 왕실은 당시의 민심을 거론하며 당나라에 ‘일통삼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곧 신문왕 때에는 문무왕 때의 ‘원흉의 제거’가 ‘일통삼한’으로 변화하였고, ‘당나라와의 의군’은 ‘신라 백성의 추승’으로 바뀌었다. 신라 왕실

14) 《三國史記》 권8, 신문왕 12년 봄조에 “唐中宗遣使口勅勅曰 我太宗文皇帝 神功聖德 超出千古 故上僊之日 廟號太宗 汝國先王金春秋 與之同號 尤爲僭越 須急改稱 王與羣臣同議 對曰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頗有賢德 況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臣民不勝哀慕 追尊之號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教勅 不勝恐懼 伏望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이라고 하였다.

은 당나라와의 관련성보다는 신라의 자주적 삼국통일을 보다 강조하는 자세를 갖추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을 참고하기로 하자.

- ① 제37대 혜공왕 때인 대력14년기미 4월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유신공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준마를 탔는데, 마치 장군의 모습과 같았고, 또한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은 40명 쯤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와서 竹現陵에 들어갔다. 갑자기 능 안에서 마치 진동하며 우는 소리, 또는 호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은 “신은 평생 보좌할 때 어려움을 구하고 널리 합한 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백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鎮護하여 재앙을 없애고 환란을 구할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죄가 없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군신들이 나의 功烈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다른 곳으로 멀리 옮겨 다시는 애쓰지 않겠습니다. 원하건대 왕께서는 허락하소서”라고 하였다. 미추왕은 “생각하건대 나와 공이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공은 다시 이전처럼 힘써 달라”고 대답하였다. 세 번이나 요청해도 모두 허락하지 않자 회오리 바람이 이내 돌아갔다. 혜공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工臣 金敬信을 보내 김공의 능에 가서 사과하게 하였다. 김공을 위하여 功德寶田 30결을 驚仙寺에 내려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 절은 김공이 평양을 토벌한 뒤 복을 심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이다. 미추왕의 혼백이 아니었다면, 김공의 노여움을 막지 못하였을 것이다. 미추왕이 나라를 지키려는 것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나라 사람들은 덕을 생각해서 三山과 함께 제사지내어 서열을 五陵의 위에 두어 大廟라고 불렀다고 한다.¹⁵⁾

- 15) 《三國遺事》 권1, 기이1 未鄒王竹葉軍조에 “越三十七世惠恭王代 大曆十四年己未四月 忽有旋風 從庚信公塚起 中有一人乘駿馬如將軍儀狀 亦有衣甲器仗者四十許人 隨從而來 入於竹現陵 俄而陵中似有振動哭泣聲 或如告訴之音 其言曰 臣平生有輔時救難匡合之功 今爲魂魄 鎮護邦國 攘災救患之心 暫無渝改 往者庚戌年 臣之子孫無罪被誅 君臣不念我之功烈 臣欲遠移他所 不復勞動 願王允之 王答曰 惟我與公不護此邦 其如民庶何

- ② 서울의 동북쪽 20리 가량 되는 暗谷村의 북쪽에 鑿藏寺가 있었다. 신라 제38대 원성대왕의 아버지 대야간 孝讓, 追封된 明德大王이 숙부 파진찬을 추모하여 세운 것이다.…이전에 이 절에는 한 노승이 있었는데, 문득 꿈에 眞인이 석탑의 동남쪽 언덕 위에 앉아 서쪽을 향해 많은 중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보고, 이곳은 반드시 佛法이 머무를 곳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은 바위가 험준하고 시냇물은 물살이 급해서 工匠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모두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터를 닦을 때에 이르러서는 평탄한 곳을 얻어 집을 세울 만하였는데 마치 신령의 터와도 같았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좋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한다.…세간에 전하는 말로는 태종이 삼국을 통일한 뒤에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 안에 감추었는데, 그로 인해 무장사라 한다고 전한다.¹⁶⁾

혜공왕 때 김유신이 미추왕에게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설움을 고백하였다. 그는 자신의 자손이 죄없이 죽임을 당한 것을 억울해 하면서, 평생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고 널리 합한 공을 강조하였다. 그는 신라의 백제 정벌과 고구려 평양성 점령에 참여하였으므로, 나라의 어려움을 없애고 널리 합한 공은 신라가 백제를 물리치고 고구려를 아울러 ‘일통삼한’을 이룬 위업을 일컫는다. 하소연을 들은 미추왕은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김유신을 말리면서 ‘백성들을 어찌 할 것인가’라

公復努力如前 三請三不許 旋風乃還 王聞之懼 乃遣工臣金敬信 就金公陵 謝過焉 爲公立功德寶田三十結于驚仙寺 以資冥福 寺乃金公討平壤後 植福所置故也 非未鄒之靈 無以遏金公之怒 王之護國 不爲不大矣 是以邦人懷德 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大廟云”이라고 하였다.

- 16) 《三國遺事》 권3, 탑상4 鑿藏寺彌陁殿조에 “京城之東北二十許里 暗谷村之北有鑿藏寺 第三十八元聖大王之考大阿干孝讓追封明德大王之爲叔父波珍喰追崇所創也…先是寺有一老僧 忽夢眞人坐於石塔東南岡上 向西爲大衆說法 意謂此地必佛法所住也 心秘之而不向人說 崑石巉峯 流澗激迅 匠者不顧 咸謂不臧 及乎辟地 乃得平坦之地 可容堂宇 宛似神基 見者莫不愕然稱善 近古來殿則壞圯 而寺獨在 諺傳太宗統三已後 藏兵鑿於谷中 因名之”라고 하였다.

고 하였다. 김유신이 ‘일통삼한’을 이룬 공적은 신라 백성에게 모두 알려진 일이었기에, 미추왕은 나라를 생각하여 그를 머물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혜공왕은 이 일을 알고 평양 공격 이후에 김유신을 위해서 창건하였던 취선사에 공덕보전 30결을 내려 명복을 빌었다. 토지를 취선사에 獻納한 것은 김유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일통삼한’의 위업을 이룬 김유신을 적절히 대우하지 않는 신라 왕실에 대한 불편한 민심을 다스리려는 뜻도 담았다. 신문왕 이후 혜공왕 때에도 신라 사람들은 김유신을 통해서 ‘일통삼한’의 과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혜공왕이 흥거한 뒤, 왕위는 선덕왕을 거쳐 원성왕에게 이어졌다. 혜공왕의 명령을 받아 김유신 묘에 사과하러 갔던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원성왕의 아버지인 김효양은 숙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무장사를 건립하였다. 무장사는 암곡촌의 북쪽에 위치하였는데, 바위가 험준하고 시냇물의 물살은 급해 마치 ‘신령의 터’와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당시 전하는 소문에 의하면, ‘태종무열왕이 삼국통일 뒤에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 안에 감추었기에 무장사라 부른다’고 한 곳이었다. 무장사를 창건한 시기는 대체로 김효양이 활동하였던 때였으므로, 혜공왕 이전에 해당할 것이다. 그 소문은 무장사에 미타전을 건립하였던 소성왕 흥거 이후까지 전해졌다.¹⁷⁾ 자연스럽게 태종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統三’이라는 인식은 원성왕 이후에도 여전히 신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셈이다.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고 고구려 평양성을 점령한 뒤, 신라 왕실은

17) 《三國遺事》 권3, 탑상4 鑿藏寺彌陀殿조에 “寺之上方 有彌陀古殿 乃昭成<一作聖>大王之妃桂花王后爲大王先逝 中宮乃充充焉皇皇焉 哀戚之至 泣血棘心 思所以幽贊明休 光啓玄福者 聞西方有大聖曰彌陀 至誠歸仰 則善救來迎 是真語者 豈欺我哉 乃捨六衣之盛服 罄九府之貯財 召彼名匠 教造彌陀像一軀 并造神衆以安之”라고 하였다.

당나라와 함께 그것을 이루었다고 국내외에 알렸다. 이 때 문무왕은 그 성과가 ‘선왕의 뜻’과 ‘원흉의 제거’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신문왕 때에 이르면, ‘一統三韓’·‘統三’을 강조하면서, 이를 알고 있는 ‘신라 백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원성왕과 소성왕 이후까지도 줄곧 계속되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아울렀다는 ‘一統’ 인식은 중대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하대 초에 이르러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일통삼한’·‘일통삼국’ 인식의 공존

신라 사회는 애장왕 때 이후에 점차 왕위 계승 다툼으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왕위 계승 다툼은 신문왕 때에 종식되었지만, 원성왕 후손 사이의 세력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안왕의 사위로 즉위한 경문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佛事를 일으켰고, 원성왕릉을 새롭게 조성하여 家系意識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효와 불사를 강조한 현강왕과 정강왕, 진성왕 때에도 계속되었다.¹⁸⁾

특히 경문왕계 왕실은 對唐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과 불교 사상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고, 정토불사를 설행하면서 중앙 정계의 혼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위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왕위 계승 다툼의 여파로 인해 지방 곳곳에서 초적이 발생하면서, 왕실에 대항하는 이들이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신라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서, 자연히 ‘一統三韓’·‘統三’을 강조하고 ‘신라 백성의 어려움’을 부각하였던 ‘一統’ 인식도 영향을 받

18) 張日圭, <송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 192, 2006 :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217~227쪽.

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옛날 구려가 나라를 지킬 때 험한 지세를 밟고 교만에 가득 차 임금을 죽이고 백성을 해치며 천명을 어겼습니다. 태종문황제가 불꽃 같은 큰 화를 내어 어리석고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친히 六軍을 거느리고 멀리 만 리를 순행하며 공손히 천벌을 봉행하여 깨끗하게 海隅를 청소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날뛰던 기세가 식었지만, 남은 무리를 거두어 따로 고을의 무리들과 모의하여 몰래 나라 이름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곧 옛날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임을 알겠습니까.¹⁹⁾

884년(헌강왕 10) 가을에 최치원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賓貢進士試의 知貢舉였던 예부상서 裴瓚에게 狀文을 보냈다. 이 글에서 그는 고구려가 땅의 험함을 밟고 교만을 부리면서 임금을 죽이고 백성에게 暴虐하는 등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당나라 태종이 공손히 천벌을 행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별도로 邑聚들과 함께 모의하고 나라 이름을 도적질하여 발해를 세웠다고 보았다. 발해는 천명을 어긴 이유로 당나라의 응징을 받은 뒤에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였다. 최치원은 고구려와 발해를 천명을 어기면서 당나라 황제의 교화를 벗어난 교만한 무리라고 규정하였다.

이 글은 귀국길에서 지은 것이므로, 신라의 발해 인식이기보다는 당나라에서 통용되었던 발해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²⁰⁾ 880년대에 당나라 사람들은 고구려를 교만하고 흉악한 나라로 여겼고, 당나라 황제가 천벌을 받들어 그들을 깨끗이 제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19) 崔致遠, <與禮部裴尙書瓚狀> 《東文選》 권47에 “昔者句麗衛國 負險驕盈 殺主虐民 違天逆命 太宗文皇帝震赫斯之盛怒 除蠹尔之群兇 親率六軍 遠巡萬里 襄行天罰 靜掃海隅 句麗既息 狂飈 劣收遺燼 別謀邑聚 遽竊國名 則知昔之句麗 則是今之渤海”라고 하였다.

20) 張日圭, <최치원의 渤海觀과 그 의미> 《韓國學論叢》 29, 2006 : 와의 책, 2008, 433~434쪽.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보면서 나라 이름을 도적질한 나라로 규정하였다.

최치원은 귀국 후에도 여러 글을 작성하면서 발해를 언급하거나 '一統'을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엿드려 들건대 동해 밖에 三國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馬韓·下韓·辰韓이었습니다. 마한은 高麗이고, 변한은 百濟이며, 진한은 新羅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전성기 때에 강한 군사가 100만 명 이어서, 남으로는 吳越을 침략하고 북으로는 幽燕齊魯 지역을 어지럽혀서 중국의 방해가 되었습니다.…정관 연간에 우리 당나라 태종 황제는 친히 6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삼가 천벌을 행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위엄을 두려워하여 강화를 요청하였고, 문황제는 항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에 우리 무열대왕은 犬馬之誠으로 한 나라의 위협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나라에 들어가 알현하는 일은 이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뒤에도 고구려와 백제가 이전처럼 악을 저지르자, 무열왕은 입조하여 항도가 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종 황제 현경5년에 이르러 소정방에게 명령하여 10道の 强兵과 樓船 1만 척을 거느리고 백제를 크게 무찌르고서 그 땅에 부여도독부를 두고 遺民을 모아 당나라의 관원을 배치하였습니다.…총장 원년에 영공 徐勣에게 고구려를 격파하라고 명령하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봉 3년에 이르러서는 그 백성들을 하남과 농우로 옮겼습니다. 고구려의 잔당들이 점차 북쪽 태백산 아래에 모여들어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습니다.…지금까지 3백여 년 동안 한 나라가 무사하고 창해가 평안한데, 이것은 우리 무열대왕의 공로입니다.²¹⁾

21) 崔致遠, <上大師侍中狀> 《三國史記》 권46, 崔致遠傳에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下韓辰韓 馬韓則高麗 下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高麗百濟 全盛之時 强兵百萬 南侵吳越 北撓幽燕齊魯 爲中國巨蠹…貞觀中我唐太宗皇帝 親統六軍渡海 恭行天罰 高麗畏威請和 文皇受降廻 此際我武烈大王 請以犬馬之誠 助定一方之難 入唐朝謁 自此而始 後以高麗百濟踵前造惡 武烈入朝請爲鄉導 至高宗皇帝顯慶五年 勅蘇定方 統十道强兵樓舡萬隻 大破百濟 乃於基地置扶餘都督府 招緝遺氓 莅以漢官…摠章元

② 옛날에 우리나라가 술밭처럼 셋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드러내었던 때, 백제에 蘇塗의식이 있었는데, 甘泉宮에서 지낸 金人의 제사와 같았다. 그 뒤 서진의 曇始가 貌에 들어옴은 攝摩騰이 동쪽으로 後漢에 들어감과 같았고, 고구려의 阿度가 우리나라로 건너옴은 康僧會가 남쪽으로 吳나라에 감과 같았다. 그때는 양나라 菩薩帝가 東泰寺로 되돌아간 지 1년 만이고, 우리 법흥왕이 법 조항을 제정한 지 8년 만이다. 또한 이미 바닷가에 즐거움을 주는 자비의 근본을 심었고, 해 뜨는 고장이 더욱 자라는 信智의 보배를 빛냈으며, 하늘이 착한 서원을 융합하고 땅이 뛰어난 인연을 솟구치게 하였다. 이에 귀한 신하가 자기 몸을 버리고 왕자가 머리를 깎았으며, 비구가 서쪽에서 배우고 나한이 동쪽에서 노닐었다. 인하여 우리나라의 혼돈이 능히 열리고 사바세계가 두루 교화되어, 산천의 뛰어난 경치를 가려서 토목의 뛰어난 공력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수도할 집을 꾸미고 수행할 길을 밝혀서 믿는 마음이 융숭고 지혜의 힘이 바람으로 드날렸다. 과연 피비린내 나는 무력다툼에서 재앙을 제거하고 화살을 써서 경사를 크게 칭송하니, 옛날에 작은 세 나라가 지금은 장하게 한 집안을 이루었다. 탐들이 구름처럼 늘어서서 장차 조그만 틈도 없었고, 고래같이 큰 북이 진동하기를 우레처럼 하여 諸天에서 멀지 않았다. 짐차 물들어짐에 여유가 있었고 그옥이 구함에 싫어함이 없었다.²²⁾

③ 이듬 해 봄에 산을 떠나...잠시 머물렀는데, 여름 밤의 꿈에 月嶽

年 命英公徐勣 破高句麗 置安東都督府 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隴右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至今三百餘年 一方無事 滄海晏然 此乃我武烈大王之功也”라고 하였다.

22) 崔致遠, <智證和尚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에 “就以國觀國 考從鄉至鄉 則風傳沙嶮而來 波及海隅之始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人之祀 厥後西晉曇始始之貌 如攝騰東入 句驪阿度度于我 如康會南行 時乃梁菩薩帝反東泰一春 我法興王制律條八載也 亦既海岸植與樂之根 日鄉囉增長之寶 天融善願 地聳勝因 爰有中貴捐軀 上仙剔髮 芘菻西學 羅漢東遊 因爾混沌能開 娑婆遍化 莫不選山川勝槩 窮土木奇功 藻宴坐之宮 燭修行之路 信心泉涌 慧力風揚 果使漂杵蠲災 囊橐騰慶 昔之蕞爾三國 今也壯哉一家 雁刹雲排 將無隙地 鯨桴雷振 不遠諸天 漸染有餘 幽求不斲”이라고 하였다.

神官이 오기를 요청하였다. 이내 새벽이 되었는데, 慈忍禪師가 글을 써서 보내어 “月光寺는 神僧 道證이 있었던 곳이다. 옛날에 우리 太宗大王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애석해 여기고, 海의…三韓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일통의 모습을 이루게 하며…을 입히고…의 재앙을 영원히 없앴다고 하여 따로 이 산을 元勳으로 드러내 封하였다…”²³⁾

최치원은 895년(진성왕 9) 8월 이후에 견당사로 파견되었을 때 太師侍中 李克用에게 글을 보내²⁴⁾ 사행길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조달하고 어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동해 밖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는 군사를 내어 중국을 괴롭혔기에 황제의 천벌을 받았고, 이 때 신라는 당나라를 정중히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 뒤 백제와 고구려가 이전처럼 중국의 방해가 되자, 특별히 무열왕이 향도가 되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물리쳐 300여 년동안 신라가 무사하고 태평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공로를 세웠다고 하였다.

최치원은 885년(헌강왕 11)에 왕명을 받아 지증대사 도현을 기리는 비명을 지었는데, 비명은 890년(진성왕 4)에 완성되었고, 탑비는 893년에 건립되었다.²⁵⁾ 이 글에서 그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셋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는데, 군왕과 신하가 다투어 삭발하고 출가하는 등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정성껏 믿었기에, 작은 세 나라가 지금은 장하게 한

23) 金穎, <月光寺 圓郎禪師大寶禪光靈塔碑>에 “來年春出山 寓止□□□□ 夏夜夢月嶽神官來請 及曉慈忍禪師 致書云 月光寺者 神僧道證所也 昔我太宗大王 痛黔黎之塗□ □□海之□□ 止戈三韓之年 垂衣一統之日 被□□□之□ 永除□□之災 別封此山表元勳也”라고 하였다.

24) 張日圭, <최치원의 渤海觀과 그 의미>, 앞의 책, 2008, 164쪽.

25) 崔致遠, <智證和尚碑銘 並序> 《崔文昌侯全集》에 “至乙巳歲…錫手教曰 縷褐東師 始悲西化 繡衣西使 深喜東還 不朽之爲 有緣而至 無格外孫之作 將酬大師之德…影件八冬”이라고 하였다.

집안을 이루었다고 언급하였다. 최치원은 당나라 知人에게 보낸 글에서만 아니라, 신라 왕명을 받아 작성한 글에서도 ‘一統三國’을 언급하였다.

원랑대사 대통은 883년(헌강왕 9) 10월 5일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업적을 기리는 비명은 890년 9월 15일에 건립되었다. 비명에서 태종대왕은 백성의 어려움을 애석하게 여겨 삼한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일통의 모습을 이룬 군왕으로 묘사되었다. 비명은 당시 활동하였던 金穎이 찬술하였는데, 그는 비명에서 ‘一統三韓’과 ‘신라 백성’을 부각하였다.

최치원은 귀국 후에 발해를 당나라 황제가 천벌을 행한 뒤 모인 고구려 잔당의 무리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면서, 이들 나라는 각각 마한, 변한, 진한을 계승한 나라로 특별히 표현하였다. 나아가 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귀국 후에 재당시절 발해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삼국’이 곧 ‘삼한’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삼국 하나’라는 ‘일통삼국’의 인식을 나타내었다.

최치원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김영은 ‘삼한’을 ‘삼국’이라고 표현한 최치원과 달리 ‘삼한’과 ‘신라 백성’을 강조하였다. 최치원은 통일 주체로 신라 백성을 위무하였던 무열왕을 여전히 강조하였다. 자연히 그는 비록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김영처럼 ‘신라 백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 최치원이 활동하였던 당시의 신라 사회에는 신문왕 때 이후에 신라 사회에 유지되었던 ‘一統三韓’·‘統三’에서 ‘삼한’을 ‘삼국’으로 바꾸어 이해하면서, ‘일통삼한’과 ‘一統三國’을 함께 강조하는 ‘一統’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일통삼국’ 인식이 제기된 것은 아마도 당시 신라와 발해를 둘러싼 국제 정세 때문인 듯하다. 곧 897년 7월에 발해의 왕자 大封齋는 당나

라 조정에 장문을 보내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당나라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고, 신라 국왕은 그것을 감사하는 표문인 <謝不許北國居上表>를 올렸다. 이 표문은 최치원이 효공왕의 명령을 받아 작성하였다. 그는 표문에서 ‘나라 이름의先後는 強弱을 통해 건주어 칭하지 않는다. 조정에서 等位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찌 盛衰로 그것을 고치겠는가. 마땅히 옛 관례를 이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²⁶⁾

신라와 발해의 등위 다툼은 국자감 태학생의 진사시 급제 경쟁에서 비롯되었다. 872년(경문왕 12)에 발해 烏昭度가 신라 李同을 누르고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2년 뒤에 최치원은 그 치욕을 씻으며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치원은 무열왕 때부터 당나라 황제의 교화를 받은 신라의 위상을 강조하였다.²⁷⁾ 자연히 그는 김영과 달리 고구려와 발해를 비난하면서 삼국통일을 강조할 때, 삼한의 비정을 달리하면서 진한인 신라 국가를 앞세우는 ‘일통삼국’ 인식을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26)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 《東文選》 권33에 “去乾寧四年七月 渤海賀正王子大封齋進狀 請許渤海居新羅之上 伏奉勅旨 國名先後 比不引強弱而稱 朝制等威 今豈以盛衰而改 宜仍舊貫 準此宣示者”라고 하였다.

27) 崔致遠, <與禮部表尙書瓊狀> 《東文選》 권47에 “當國自貞觀中 偏荷殊恩 永安遠俗 仍許桑津之學者 俾隨槐市之生徒 遂有負笈忘疲 乘桴涉險 編名獻賦 遂趨於金馬門前 舉跡昇仙 得到於巨鼇山上 無何 異俗亦忝同科 自大中初 一彼一此 春官歷試 但務懷柔 此實修文德以來之 又乃不念舊惡之旨 有以見聖朝則恩深含垢 渤海則志切慕羶 既非莫往莫來 則亦何先何後 然至故靖恭崔侍郎主貢之年 賓薦及第者兩人 以渤海烏昭度爲上 有同瘠魯而肥杞 誰驗鄭昭而宋龔 淘之汰之 雖甘沙磧居後 時止則止 豈使淄澠並流 車書縱賀其混同 冠履實慚於倒置 伏遇尙書高懸藻鑑 榮掌桂科 既照膽以無差 固推心而有待 前都統巡官殿中侍御史崔致遠 幸將薄技 獲廁諸生…實逢至公 得雪前恥 變化深資於一顧 光榮遠播於三韓”이라고 하였다.

IV. ‘일통삼한’ 인식으로의 회귀

889년(진성왕 3)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래, 신라의 지방 곳곳에서는 초적이 연이어 봉기하였다.²⁸⁾ 신라 왕실의 효율적인 지방 지배는 점차 어려워졌고, 그 사이에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점차 세력을 일으키면서 영역을 넓혀 갔다. 신라 영역은 점차 신라 왕실의 지배가 유지된 지역과 후백제·태봉·고려가 점거해 나간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신라 영토가 셋으로 분열되면서, 지방 곳곳에서는 세력을 다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세력 다툼은 고려가 신라의 항복을 받고 견훤의 아들들을 제압하면서 끝났다. 이처럼 고려에 의해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시 ‘一統’ 인식이 크게 제시되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 ① 문덕2년 4월...때는 厄運을 맞아 세상이 혼란하였다. 災星이 三韓에 길게 빛을 비추고 毒露는 늘 四郡에 퍼져 있었다. 하물며 巖谷에 계획없이 몰래 숨어 있음에서라. 건녕 초에 王城에 와서 머물며 분향하던 절에 舊菴을 피웠고, 광화 말에는 지방으로 돌아가서 잡초로 변한 터에 梅檀을 심었다. 한스러운 것은 곧 魔軍을 만난 것이었지만, 장차 佛道를 펴고자 하였다. 효공대왕이 갑자기 寶位에 올라 宣宗을 아꼈는데, ...대사가 당 신라국 경명왕의 天祐 연간에 教化의 인연을 이미 끝냈다. 경명왕은 시호와 탐명을 하사하고 이내 侍郎 崔仁浼에게 명령하여 비문을 짓게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뒤섞이고 사람들은 교활해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로써 해는 새로 바뀌고 월은 옛것으로 변하는데 비문은 세우지 못하였다. 뒤에 고려국이 사군을 평정하고 三韓을 바로잡고서 현덕원년 7월 15일에 이 커다란 비를 太子山에 세웠다. 진실로 좋은 인연이 있기 때문인가.²⁹⁾

28) 《三國史記》 권11, 진성왕 3년조.

29) 崔仁浼, <太子寺 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에 “至文德二年四月...時當厄

- ② 때는…의 해인데, 혼란이 劉曹之代보다 심하였다. 위로는 聖主가 없어서 고슴도치 같은 무리들이 뒤덮은 것 같았고, 아래로는 변변하지 못한 무리가 있어서 살육되는 어려움을 막지 못하였다. …四海가 끓어 오르고, 三韓이 시끄러웠다. 9년 8월 중에 前主가 北…을 영원히 평정하였으니, …배의 앞과 뒤를 내어 친히 車駕를 몰았다. 때에 羅州가 항복을 요청하였으므로, 개펄과 섬 옆에 군사를 머물게 하였고, 武州가 군왕의 마음을 건드리므로, 왕도 주변에서 무리를 움직였다.³⁰⁾
- ③ 今上은 성스러운 문장이 세상에서 특출나고, 신이한 무예는 하늘에서 받아, 한 곳으로만 능히 三韓을 정리하였고, 한 번에 가지런히 一統을 이루었다. 지금 높이 金鏡을 매달아 널리 靑丘를 비추었다. 그로 인해 백성을 진휼해서 이미 중흥의 운세를 이루었고, 불교에 귀의하여 모두 外護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³¹⁾
- ④ 禡太3년 가을에 이르러, 우리 태조 神聖大王이 몸소 갑옷을 두르고 손에 칼을 들고서 공손히 天討를 행하였다. 우리나라를 크게 덮어 三韓을 화목하게 하였고, 四郡을 전부 차지하였다. 다시 君子國을 평화롭게 하였고, 梵王家를 우리러 존숭할 수 있게 하였다.³²⁾

運 世屬此蒙 災星長照於三韓 毒露常鋪於四郡 況於巖谷 無計潛藏 乾寧初 至止王城 薰蒼菴於焚香之寺 光化末 旋歸野郡 植梅檀於薤草之墟 所恨正值魔軍 將宣佛道 孝恭大王驟登寶位 欽重禪宗…以 大師於唐新羅國 景明王之天祐年中 化緣畢已 明王謚號銘塔 仍勅崔仁浣侍郎 使撰碑文 然以世雜人狷 難爲盛事 是以年新月古 未立碑文 至後高麗國 几平四郡 鼎正三韓 以顯德元年七月十五日 樹此豐碑於太子山者 良有良緣者乎”라고 하였다.

- 30) 崔彥搆, <無爲寺 先覺大師遍光塔碑>에 “時□□□ □□於□□之年 亂甚於劉曹之代 上無聖主猶鋪狷聚之徒 下有庸流莫防鯨鯢之難 物□□□ □□如□ 四海沸騰 三韓騷擾 至九年八月中 前主永平北□□□□□□□ □發舳艫 親駟車駕 此時 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旁 武府逆鱗 動衆於郊畿之場”이라고 하였다.
- 31) 崔彥搆, <地藏禪院 朗圓大師悟眞塔碑>에 “今上聖文世出 神武天資 三駟而克定三韓 一舉而齊成一統 今則高懸金鏡 普照靑丘 所以賑恤黎民 已致中興之運 歸依釋氏 皆披外護之恩”이라고 하였다.
- 32) 金廷彥, <玉龍寺 洞眞大師寶雲塔碑>에 “及乎清泰三年丙申秋 我太祖神聖大王 躬擐周衣 手提漢劍 龔行天討 丕冒海隅 協和三韓 奄有四郡 加復

- ⑤ ...이 때 두 적은 얼음이 녹는 것 같았고, 三韓은 안개가 걷힌 것 같았다. 먼저 흉악한 이를 없앨 대책을 축하하고, 다시 성스러운 이에게 축하할 의식을 폈다.³³⁾

후삼국시기에는 많은 선종 승려가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호족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산문을 일구어 나갔다. 특히 후백제와 고려가 치열하게 영역을 다툰 때, 禪僧들은 전란을 겪으면서 駐錫處를 옮겨 가며 戰況을 직접 목격하였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찬술한 비명에는 후삼국시기의 상황과 함께 후삼국통일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다.

비로암 진공대사 □運은 937년(태조 20)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탑비는 939년 8월 15일에 건립되었다. 지장선원 낭원대사 開淸은 930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10년이 지난 940년 7월 30일에 탑비가 세워졌다. 무위사 선각대사 迥微는 917년에 궁예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946년(정종 1) 5월 29일에야 탑비가 건립되었다. 태자사 낭공대사 行寂의 탑비는 954년(광종 5) 7월 15일에 건립되었는데, 이 때 비명에 대한 陰記가 작성되었다. 그의 비명은 916년에 입적한 뒤 917년 11월 改葬 이후에 짓기 시작하였던 듯하지만, 완성 시기는 알 수 없다. 옥룡사에 주석하였던 통진대사 慶甫는 947년에 입적하였고, 탑비는 958년 8월 15일에 세워졌다.

<행적비명>에는 889년 4월 이후의 정세가 묘사되었다. 곧 889년에 초적이 봉기하면서, 세상은 액운을 맞은 듯이 혼란하였는데, 재앙과 독이슬이 삼한과 四郡에 넓게 퍼졌다. 그것은 마치 마군을 만난 것과 같았고, 세상은 뒤섞이고 사람들은 교활해졌다. 때문에 이미 완성된

輯寧君子國 瞻仰梵王家”라고 하였다.

33) 崔彥搆, <毗盧庵 眞空大師普法塔碑>에 “此時二敵氷銷 三韓霧廓 先慶除兇之策 更申賀聖之儀”라고 하였다.

비명은 세월만 지나 세우지 못하였다가 왕건이 사군을 평정하고 삼한을 바로잡은 뒤에 마침내 건립될 수 있었다. 이 비명에서 후삼국시기는 재앙이 넘치고 마군이 횡행하여 상황에 따라 運身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언급되었다. 다만 그러한 액운이 가득한 곳은 삼한과 사군으로 표현되었다.

<형미비명>에는 912년(효공왕 16) 8월 이전의 상황이 언급되었다. 곧 당시는 魏나라·蜀나라·吳나라가 형세를 겨루던 중국의 삼국시대처럼 매우 혼란하였던 때였다. 어진 군주가 없어서 고슴도치와 같은 무리들이 넘쳐났고, 변변하지 못한 무리 때문에 살육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궁예와 견훤이 서로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이 비명에서 후삼국시기는 四海와 삼한이 끊어 오르고 시끄러웠던 때로 표현되었다.

<개칭비명>·<경보비명>·<□운비명>에는 왕건이 견훤의 아들을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이후의 상황이 기록되었다. 왕건은 세상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신이한 무예를 하늘에서 받아 얼음이 녹듯이 두 적을 사라지게 하였고, 삼한을 덮은 안개를 힘써 걷어냈다. 그는 마침내 삼한을 화목하게 하였고, 사군을 전부 차지하여 ‘일통’을 이루었다. 이들 비명에서도 왕건이 두 적인 궁예와 견훤을 제압한 곳은 삼한과 사군으로 표현되었다.

신라 말 고려 초에 활동하였던 선승의 비명에서 후삼국시기는 액운이 가득하여 앞날을 알 수 없는 때로 묘사되었다. 재앙과 살육 등은 삼한과 사군에 넓게 퍼져 있었는데, 왕건이 이를 없앴다. 삼한과 사군은 모두 옛 조선의 영역, 곧 신라의 영토를 의미한다.³⁴⁾ 사해 역시 신라의 영역을 일컫는다.³⁵⁾ 왕건은 발해를 포함하여 ‘一統’을 이룬 것이

34) 《三國遺事》 권1, 기이1 魏滿朝鮮조에 “故遂定朝鮮 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이라고 하였다.

35) 《三國史記》 권12, 경명왕 5년조에 “況此新羅所謂三寶 亦出於人爲之侈而已 爲國家何須此耶…若此者 行之於內 足以善一國推之於外 足以澤四

아니라, 신라에 퍼져 있는 혼란을 수습하여 ‘일통삼한’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서 백성을 진휼하여 중흥의 운세를 이루었으며 군자국을 평화롭게 하였던 셈이다. 선승의 비명에서 ‘일통’ 인식은 최치원이 발해와 관련하여 강조하였던 ‘일통삼국’ 인식을 배제하고서 신라의 영역을 아우른 ‘일통삼한’ 인식을 부각하는 경향을 띠었다.

‘일통삼한’ 인식은 신문왕 때 이후 신라의 ‘일통’ 인식으로 정립되었다. 문무왕 때의 ‘원흥의 제거’는 신문왕 때에 ‘일통삼한’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신라 백성의 추승’을 포함하였다. 후삼국시기에 나타난 ‘일통삼한’ 인식 역시 ‘백성들의 현실적 구제’를 부각하는 모습을 담았다. 따라서 후삼국시기의 ‘一統’ 인식은 신라 왕실이 백제와 고구려, 당나라와 연이어 다투며 몰아내며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음을 강조하였던 이전의 ‘일통삼한’ 인식으로 회귀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일통삼한’ 인식의 회귀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소 긴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천성2년 가을9월에 견훤이 近品城을 공격하여 점령하고는 불태웠다. 나아가 신라의 高鬱府를 습격하고는 신라의 수도 근처에 이르자 신라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10월에 태조가 장차 군사를 내어 구원하려고 하자 견훤이 갑자기 신라 왕도로 쳐 들어갔다. 이 때 왕은 妃嬪과 함께 鮑石亭에 놀면서 酒宴을 베풀고 즐기고 있었다.…태조가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견훤을 公山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크게 싸웠는데, 태조의 장수 金樂과 崇謙은 죽고 여러 군사가 패하고서 태조만 겨우 몸만 빠져 나갔다.…이 때에 신라의 군신은 쇠퇴한 때를 맞아 다시 중흥하기 어렵다고 하여, 우리 태조를 피어 우호를 맺고 후원으로 삼았다. 견훤은 혼자 나라를 빼앗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조가 혹시 먼저 갈까 두려워 군사를 거느리고 왕도에 들어가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12월 某일에 글을 태조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지

海 又何外物之足云哉”라고 하였다.

난 번에 國相 金雄廉 등이 장차 足下를 서울로 불러들이려고 하였다. 이것은 자라가 큰 자라 소리에 응하고, 종달새가 새매의 날개를 헤치는 것과 같다. 반드시 生靈을 도탄에 빠뜨리고, 宗社를 폐허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 祖鞭을 잡고 홀로 韓鉞을 휘둘러 百僚에게 白日을 가리키며 맹세하면서 6부를 說諭할 때 義風으로 하였다. 뜻밖에 간신이 도망가고 國君이 갑자기 죽는 변고를 당하였다. 마침내 景明왕의 表弟이면서 獻康王의 外孫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도록 권고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재건하고는 軍왕을 잃었지만 새 임금을 서게 하였다. 죽하는 충고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한갓 流言을 들어 온갖 계략으로 엿보고 여러 방면으로 침노하였지만 오히려 나의 말머리를 보거나 나의 쇠털을 뽑지 못하였다... 강약이 이와 같아 승패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활을 平壤門樓에 걸고 말에게 溟江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前月 7일에 吳越國使 班尙書가 와서 왕의 조서를 전하면서 '경이 高麗와 더불어 오랫동안 평화로운 우호를 통하고 서로 이웃으로 맹서를 맺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근래 인질 둘이 다 죽어서 마침내 和親의 舊好를 잃고 서로의 영역을 침략하여 전쟁을 그치지 않았다. 지금 일부러 사신을 보내어 경의 本道로 가게 하였고, 또한 고려에도 보냈으니, 각각 서로 친목하여 길이 복을 누리게 하라'고 하였다. 나는 尊王의 義를 두터이 하고 事大의 情을 깊이 하였으므로, 지금 詔諭를 듣고 그대로 따르려 하지만 항상 죽기가 없애려고 하면서도 못하고, 피곤하면서도 오히려 싸우려고 함을 염려하여, 지금 그 조서를 베껴 보낸다. 留意하여 詳悉하기 바란다. 또한 토끼와 날랜 개가 서로 지칠 대로 지치면 마침내 반드시 비웃음을 남길 것이고, 큰 조개와 황새가 서로 버티면 역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迷復을 경계로 삼아 후회를 스스로 끼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3년 정월에 태조가 回答하여 "오월국 通和使 반상서가 전한 조서 1통을 받들고 검하여 죽하가 보내준 긴 글의 사연을 받아 보았다. 화려한 수레를 타고 온 大使가 制書를 가져오고, 尺素好音과 검하여 教誨를 拜承하였다. 華函을 받들어 비록 감격하였지만, 귀하의 글을 펴보니 혐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돌아가는 사절 편에 부탁하여 나의 마음을 알리고자 한다. 나는 위로 천명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의 추대에 못 이겨 외람되이 장수의 권한을 가지고 景濂의 기회를 얻었다. 지난 번에는 삼한의 액운으로 九土가 凶荒하여 많은 백성이 黃巾賊에 속하고, 田野는 赤土가 되지 아니한 데가 없었다. 여기서 흑시라도 風塵의 시끄러움을 그치게 하고, 나라의 재앙을 구하려 하여 善鄰의 우호를

맏으면서 과연 수천리가 農桑을 즐겨 업으로 하여 7~8년 동안 사졸들이 편안한 잠을 잤다. 그런데 酉年 陽月에 홀연히 사태가 발생하여 交戰을 하게 되었다. …공손히 사과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니, 오늘부터 영원히 화목하여, 조금이라도 맹세를 어기면 신이 벌할 것이다. 나 역시 止戈의 武를 숭상하고 不殺의 仁을 기하려 한다. 마침내 重圍를 풀고 피로한 사졸을 쉬게 하고, 인질도 거절하지 않으며, 다만 백성만을 편안하게 하려 하니, 이것은 내가 남쪽 사람들에게 큰 은덕을 베푼 것이다. 그런데 敵血이 마르기도 전에 흉악한 위세를 다시 떨쳐 蜂螫의 毒이 生民을 침해하고 狼虎의 狂이 畿甸을 가로막아 金城은 군색해지고 왕궁이 驚震하도록 되었다. 尊周의 義를 행함에 누가 齊桓公·晉文公의 霸道와 같겠는가. 기회를 타서 漢나라를 도모하던 것은 오직 王莽·董卓의 간악함을 볼 뿐이다. 군왕의 至尊으로 급히 족하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등 尊卑의 次序를 잃었으니, 상하가 다 같이 근심하여 ‘元輔의 忠純이 아니면 어찌 사직을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랴’고 한다. 나의 마음은 숨긴 악이 없고, 뜻은 왕실을 높이는 데 간절하여 장차 조정을 구원하고, 국가의 위태로움을 불들어 일으키려고 하는데, 족하는 털끝만한 小利를 보고 天地의 厚恩을 저버리어…그 흉악함은 桀·紂보다 더하고, 不仁함은 獍·梟보다 심하다. 나는 崩天의 원한과 却日의 정성이 극심하여 鷹鷂의 逐를 쫓는 매의 위세를 본받아 犬馬의 勤을 펼 것을 맹세하고, 제차 군사를 일으켜 두 해를 지냈다. …기필코 涿水 營中에서 張耳의 千恨을 씻고, 烏江 岸上에서 漢王의 一捷의 功을 이룰 것이니, 마침내 풍파는 쉬고 寔海는 길이 맑게 될 것이다. 하늘이 돕는 바이니, 천명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³⁶⁾

- 36) 《三國史記》 권50 甄萱傳에 “天成二年秋九月 萱攻取近品城燒之 進襲新羅高鬱府 逼新羅郊圻 新羅王求救於太祖 冬十月 太祖出師援助 萱猝入新羅王都 時 王與夫人嬪御出遊鮑石亭 置酒娛樂…太祖以精騎五千 要萱於公山下大戰 太祖將金樂崇謙死之 諸軍敗北 太祖僅以身免…時 新羅君臣以衰季 難以復興 謀引我太祖結好爲援 甄萱自有盜國心 恐太祖先之 是故 引兵入王都作惡 故十二月日奇書太祖曰 昨者國相金雄廉等將召足下入京 有同鼃應鼃聲 是欲翺披半翼 必使生靈塗炭 宗社丘墟 僕 是用先着祖鞭 獨揮韓鉞 誓百寮如敵日 諭六部以義風 不意姦臣遁逃 邦君薨變 遂奉景明王之表弟 獻康王之外孫 勸卽尊位 再造危邦 喪君有君 於是乎在 足下勿詳忠告 徒聽流言 百計窺覷 多方侵擾 尙不能見僕馬首 拔僕牛毛…強羸若此 勝敗可知 所期者 掛弓於平壤之樓 飲馬於涇江之水 然以前月七日

927년에 견훤은 신라의 근품성과 고을부를 점령하고서 왕경 근처까지 진출하였다. 신라의 경애왕은 견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려의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견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왕경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自盡하도록 하고서, 경순왕의 즉위를 이루고서는 돌아갔다. 그 뒤 견훤은 왕건에게 글을 보내어 신라의 왕경을 공격한 이유와 자신의 신념을 언급하였다. 왕건 역시 견훤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그 죄악을 꾸짖고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견훤은 자신이 신라의 왕경을 쳐들어간 것은 신라 국상 김웅림이 왕건을 신라로 불러들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사를 없애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은 평양문루에 활을 걸고 패강의 물을 말이 마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나아

吳越國使班尚書至 傳王詔旨 知卿與高麗久通歡好 共契鄰盟 比因質子之兩亡 遂失和親之舊好 互侵疆境 不戢干戈 今專發使臣 赴卿本道 又移文高麗 宜各相親比 永孚于休 僕 義篤尊王 情深事大 及聞詔諭 即欲祇承 恒慮足下 欲罷不能 困而猶鬪 今錄詔書 寄呈 請留心詳悉 且兔獯迭德 終必貽譏 蚌鷸相持 亦爲所笑 宜迷復之爲戒 無後悔之自貽 三年正月 太祖答曰 伏奉吳越國通和使 班尚書所傳詔書一道 兼蒙足下辱示長書敘事者 伏以華軺膚使 爰致制書 尺素好音 兼承教誨 捧芝檢而雖增感激 開華牋而難遣嫌疑 今託廻軒 輒敷危枉 僕仰承天假 俯迫人推 過叨將帥之權 獲赴經綸之會 頃以三韓厄會 九土凶荒 黔黎多屬於黃巾 田野無非於赤土 庶幾弭風塵之警 有以救邦國之災 爰自善隣 於焉結好 果見數千里農桑樂業 七八年士卒閑眠 及至酉年 維時陽月 忽焉生事 至於交兵…苟或渝盟 神其殛矣 僕亦尙止戈之武 期不殺之仁 遂解重圍 以休疲卒 不辭質子 但欲安民 此則我有大德於南人也 豈謂歃血未乾 兇威復作 蜂蠆之毒 侵害於生民 狼虎之狂 爲梗於畿甸 金城窘忽 黃屋震驚 仗義尊周 誰似桓文之霸 乘間誅漢 唯看莽卓之姦 致使王之至尊 枉稱子於足下 尊卑失序 上下同憂 以爲非有元輔之忠純 豈得再安於社稷 以僕心無匿惡 志切尊王 將援置於朝廷 使扶危於邦國 足下見毫釐之小利 忘天地之厚恩…元惡浮於桀紂 不仁甚於竊梟 僕 怨極崩天 誠深却日 誓效鷹鷂之逐 以申犬馬之勤 再舉干戈 兩更槐柳…必期泝水營中 雪張耳耳般之恨 烏江岸上 成漢王一捷之功 竟息風波 求清寰海 天之所助 命欲何歸”라고 하였다.

가 오월국왕의 권고에 따라서 왕건보다 힘이 센 자신이 이전에 맺은 화친의 정을 다시 잇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견훤은 자신이 당시의 분열된 영역을 합하여 사대의 의리를 지키고 신라를 수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왕건 역시 오월국 사신 반상서가 가져온 조서를 받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천명을 받들고 백성의 추대를 받아 국왕이 되었기에, 액운으로 채워진 삼한의 재앙을 자신이 늘 고심하여 해소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견훤이 자신과의 우호를 어기고 신라의 왕경을 쳐들어간 것은 桀紂와 獍梟보다 심하다고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보의 충순을 지닌 자신에게 이를 응징하도록 원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작은 이익에 따라 하늘과 땅의 은혜를 저버린 견훤보다 천명을 받은 자신이 오직 신라를 지킬 수 있음을 부각하였다.

두 글은 상대방의 허물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³⁷⁾ 때문에 글에서 견훤과 왕건은 ‘존왕의 의’와 ‘원보의 충순’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자연히 견훤과 왕건에 의해서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할 왕은 바로 신라의 국왕이었다. 비록 신라는 왕경과 그 주변만을 지배하는 상황에 빠졌고, 견훤은 오월·거란·후당 등과 교류하면서 후백제왕을 자칭하였으며, 왕건은 서경을 중시하면서 고구려를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신라는 ‘존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당시 백성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초적이 되었고 점차 호족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견훤과 왕건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면서 민심

37) 張日圭, <新羅末 慶州崔氏 儒學者와 그 活動> 《史學研究》 45, 1992, 21~41쪽.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글은 최승우가 작성하였고, 왕건이 견훤에게 답한 글은 최언위가 작성하였다. 이들은 최치원의 정치이념과 사상을 계승한 유학지식인이었다.

을 얻어 나가야 하였는데, 백성들은 이미 반신라적인 정서를 점차 강조하는 경향에 익숙하였다. 더욱이 견훤과 왕건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전국 곳곳은 戰場과 구분될 형편이 아니었다.

견훤과 왕건이 서신을 주고받았던 때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다. 견훤은 ‘평양문루’와 ‘폐강의 물’을 언급하였지만, 왕건은 민심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견훤이 전주에서 백제를 건국하면서 ‘의자왕의 숙부’를 강조한 데 반해,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면서 ‘고구려의 원수’를 내세우기보다는 백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조서를 잇달아 반포하였다.³⁸⁾

신라는 멸망의 직전에 몰린 상황에 놓였지만, 여전히 통일국가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연히 견훤과 왕건의 통일 방안은 신라 정통성의 수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견훤은 백제 국가를 상징한 ‘일통삼국’ 인식을 나타냈던 반면, 왕건은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일통삼한’ 인식을 부각하였다.³⁹⁾ 곧 왕건은 후삼국의 통일을 위해서 견훤처럼 국가를 내세우지 않고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익숙하였던 ‘일통’ 인식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삼한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38) 왕건은 918년에 즉위한 뒤 모두 6차례 詔書와 勅諭를 반포하였다. 918년 6월 16일에는 백성을 위무하였고, 6월 20일에는 관직과 관원을 분정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비축된 곡식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백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모든 제도를 신라의 것으로 환원하였다. 또한 8월 9일에는 칙유를 내려 각지에 친선사절을 파견하였고, 8월 11일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노비가 된 자를 구제하였다.

39) 왕건은 개경과 서경에 각각 7층탑과 9층탑을 건립하는 불사를 일으키면서 측근 문사인 崔凝에게 발원문을 지으라고 하였다. 이 때 그는 건립 불사를 통해서 ‘일통삼한’을 이루려고 하였다. 《高麗史》 권92, 崔凝傳에 “昔新羅造九層塔遂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西京建九層塔冀借玄功除群醜合三韓爲一家卿爲我作發願 凝遂製進”이라고 하였다.

‘일통’ 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의식은 신라가 싸우지 않고 고려에 항복하면서, 후삼국통일 이후에도 ‘일통삼국’이 아닌 ‘일통삼한’의 ‘일통’ 인식이 유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V. 맺는 말

이 글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 당나라를 물리친 뒤, ‘일통’ 인식이 형성되고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 나아가 그것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가늠해본 것이다. 곧 신라 중대 이후 신라 사람들의 ‘一統’ 인식을 정리하였고, 그것과 견훤·왕건의 ‘일통’ 인식, 그리고 후삼국시기에 제시된 ‘일통’ 의식을 비교해 보았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하고서 고구려 평양성을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전쟁 과정에서 문무왕은 ‘당나라의 의군’과 함께 ‘선왕의 뜻’을 이어 ‘원흉의 제거’를 이루었다고 국내외에 알렸다. 하지만 통일전쟁이 모두 끝난 뒤에 신문왕은 ‘一統三韓’·‘統三’을 강조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던 ‘신라 백성의 추숭’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일통’ 인식은 원성왕과 소성왕 때 이후 까지도 줄곧 유지되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아울렀다는 ‘일통’ 인식은 신라 중대 때 형성되기 시작하여 신라 하대 초에 이르러 정립되었다.

신라 말에 이르러 ‘일통’ 인식은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혼재하였다. 그것은 왕명을 받아 비명을 작성한 유학지식인에 의해서 나타났다. 金穎은 ‘삼한’과 ‘신라의 백성’을 강조하였지만, 최치원은 신라 백성을 위무하였던 무열왕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一統三韓’·‘統三’에서 ‘삼한’을 ‘삼국’으로 바꾸어 이해하면서, ‘一統三韓’과 ‘一

統三國'을 함께 강조하는 '일통' 인식을 부각하였다. 그는 당시 신라와 발해를 둘러싼 진사시 급제 경쟁에 직접 관련되었으므로, 김영과 달리 고구려와 발해를 비난하면서 신라의 통일을 강조할 때, 삼한의 비정을 달리하며 진한인 신라 국가를 앞세우는 '일통삼국'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였던 셈이다.

후삼국시기에 들어서 '일통' 인식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또 다시 변화하였다. 견훤과 왕건은 세력 다툼을 이어가면서 '일통삼한' 인식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비난하며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담은 외교문서를 통해서 '존왕의 의'와 '원보의 충순'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자연히 왕경과 그 주변만을 지배하였던 신라의 국왕은 견훤과 왕건에 의해서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할 '尊主'로 부각되었다.

견훤과 왕건은 세력 확장을 위해서 민심을 얻어야 하였다. 후백제와 고려는 신라의 영역을 나누어 지배하였으므로, '일통삼국'이 아닌 '일통삼한'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견훤은 '평양문루'와 '패강의 물'을 언급하며 '의자왕의 숙분'을 강조하였다. 왕건은 궁예를 내몰고 고려를 건국하면서 '고구려'를 부각하였지만 견훤보다 백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견훤은 백제 국가를 상정한 '일통삼국' 인식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왕건은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쏟으며 이전의 '일통삼한' 인식을 내세우면서 민심을 회유해 나갔다. 백성들은 점차 '삼한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일통' 의식을 갖게 되었다. 자연히 민심은 왕건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왕건은 마침내 후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후삼국통일 이후에도 고려는 '일통삼한' 인식을 유지하면서, 따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발해 유민을 아꼈다. 신라의 '일통' 인식은 후삼국시기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통일 방안의 하나인 '일통' 의식으로 기능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三國遺事》，《高麗史》，《東文選》，《崔文昌侯全集》

震檀學會 編,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1997.

김영하,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이재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혜안, 2007.

박종기,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李瑄根,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原動力> 《國土統一》 1973년 11월호—特輯 : 新羅의 三國統一이 南北韓 平和統一에 주는 教訓, 國土統一院, 1973.

崔昌圭,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義와 韓民族 再結合의 理念> 《國土統一》 1973년 11월호—特輯 : 新羅의 三國統一이 南北韓 平和統一에 주는 教訓, 國土統一院, 1973.

李昊榮, <新羅 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統一意識을 中心으로> 《史學志》 15, 1981.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金瑛河, <丹齋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 17, 1983.

金瑛河,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

申滢植, <三國統一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61·62, 1988.

申滢植, <新羅 三國統一의 研究史的 評價>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8.

邊太燮,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1989.

邊太燮,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味—「一統三韓」意識과 관련하여> 《新羅文化》
2, 1985.

張日圭, <新羅末 慶州崔氏 儒學者와 그 活動> 《史學研究》 45, 1992.

李昊榮, <新羅의 三國統一과 '一統三韓' 意識의 成長> 《東洋學》 26, 1996.

張日圭, <승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 192, 2006.

張日圭, <최치원의 渤海觀과 그 의미> 《韓國學論叢》 29, 2006.

김갑동,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史研究》 143, 2008.

金瑛河,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金瑛河, <新羅統一論의 軌跡과 涵의> 《韓國史研究》 153, 2011.

【日文抄録】

新羅の‘一統’認識とその影響

張 日 圭

この文は新羅の‘一統’認識が形成なって変化する過程を調べ、それが後三國統一過程に与えた影響を見たのだ。

文武王は‘唐の義軍’とともに‘先王の意’を續けて‘元兇を除去した’と国内外に知らせた。しかし、神文王は‘一統三韓’・‘統三’を強調しながら戦争で犠牲になった‘新羅百姓の追崇’を浮刻した。このような‘一統’認識は元聖王と昭聖王以後までも維持なった。新羅が三國を合したという‘一統’認識は新羅中代に形成なる始作して下代初に鼎立なった。

新羅末に‘一統’認識は混在した。金穎は‘三韓’と‘新羅百姓’を強調したが、崔致遠は新羅百姓を慰撫した武烈王を強調した。崔致遠は‘一統三韓’・‘統三’で‘三韓’を‘三國’に変えて理解しながら、‘一統三韓’と‘一統三國’を共に強調する‘一統’認識を浮刻した。彼は當時新羅と渤海をめぐる進士試及第競争に關聯なった。したがって、高句麗と渤海を批判しながら新羅統一を強調するとき、三韓の比定を変えながら辰韓の新羅國家を掲げる‘一統三國’認識を表現した。

後三國時期に‘一統’認識は再び變化した。甄萱と王建は勢力を争いながら‘一統三韓’認識を強するように示した。彼らは新羅國王を尊重して守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尊主’で浮刻した。ただ、新羅の領域を分けて支配したので、‘一統三國’がなく‘一統三韓’を掲げる必要があった。甄萱は‘義慈王の宿愼’を強調し、王建は‘高句麗’を叫んだ。しか

し、甄萱は百濟國家を留念した'一統三國'を示したが、王建は社會經濟的問題に關心を流しながら以前の'一統三韓'を掲げながら、民心を懐柔した。百姓らは漸次'三韓'が一つの國で統合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は'一統'意識を持つようになった。民心は王建の方に傾くようになり、王建はついに後三國統一を實現できた。以後にも高麗は'一統三韓'認識を維持しながら、別に'高句麗繼承意識'を掲げ、渤海流民を出し合った。新羅の'一統'認識は後三國時期に統一方案の一つである'一統'意識に作用した。

キーワード：一統, 一統三韓, 一統三國, 後三國統一方案, 甄萱, 王建

논문 투고일 : 2014. 11. 18. 심사 완료일 : 2014. 12. 5. 게재 확정일 : 2014. 12. 6.